

인기 있다더니... 감자 '탐나' 해외 철수

통상실시 계약 맺은 업체와 해외 예정 코로나19로 중앙아시아 공급 '차질'에 높은 전분 함유량·색깔 차이까지 겹쳐

해외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던 제주 품종 '탐나' 감자가 해외 시장에서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2일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A업체와 맺은 탐나 감자에 대한 '통상실시 계약'이 오는 4월 26일 해지된다. 통상실시 계약이란 탐나 감자 품종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농업기술원이 특정 업체에 판

매권을 주면 해당 업체가 판매 수익의 일부를 농업기술원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당초 통상실시 계약은 오는 2023년까지였으며, 이 기간 동안 탐나 감자 총 2200t이 키르기스공화국,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수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길이 황금빛에

전분이 적은 감자를 선호하는 반면 탐나 감자는 색깔이 희고 전분 함량이 많아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중앙아시아의 감자 파종 시기인 지난해 4월에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버리면서, 제때 물량을 공급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 됐다. 반대로 일본 품종이 장악하던 도내 농가에서는 탐나 감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공급이 시작된 이후 2019년 전체 공급량의 80%가량을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도내 전체 재배면적 2000ha 중 약 1000ha가 탐나 감자를 재배했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탐나 감자는 교배, 적응시험, 신품종 선정 등 10여년의 절차를 거쳐 탄생한 신품종"이라며 "색깔과 상관 없이 전분이 많은 감자를 좋아하는 국내 시장에서는 호응이 있지만, 감자를 주로 끓여먹는 중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독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제주품종 탐나 감자, 제주를 넘어 세계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아시아 시장 다변화로 탐나 감자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어느 물건이 좋을까" 2일 제주시 일도2동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에 설 대목을 맞아 소비시장에 선보일 과일들을 경매인들이 경매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만들기 '시동'

올레시장~이중섭거리 중심 도시숲·문화공간 조성 초점 100억 확보·주민 동의 관건



서귀포시가 도시숲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이중섭거리를 중심으로 100억원을 투입해 3.2km 구간에 대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 사진은 이중섭거리.

서귀포시가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웰빙·행복·건강을 위한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사업을 기획, 한국판 뉴딜과 제주형 그린 뉴딜과 맞물려 추진한다. 다만, 100억원 상당의 예산 확보와 함께 주민 동의는 사업 추진에 있어 '넘어야 할 산'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는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며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이중섭거리를 중심으로 도로를 연계한 구간에서 이뤄진다. 시는 차도보다 인도를 넓혀 보행자 위주의 도로 구조를 만들고, 이를 위해 차로 수와 교통체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숲 및 미세먼저 차단숲 조성, 도로 다이어트 등이 어

우러진 사업 구상으로 보행권과 쉼터 및 문화공간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서귀포 고유의 노지문화 공

간, 젊은이와 학생들의 휴식 공간, 거리공연장(버스킹)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은 물론 도민과 관광객이 어울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웰니스 판

광도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예상되는 예산은 100억원 규모이며 사업 대상은 도로 폭 4~6m, 3.2km 구간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승업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팀장은 "현재 서귀포 웰니스 도로 사업 추진에 대한 기획 단계로 앞으로 예산 확보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며 "제주연구원과의 협의 등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팀장은 이 사업의 핵심 내용에 대해 도로의 전체 폭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차로 폭이나 차로 수를 줄이고, 보도를 확장하거나 자전거 도로나 대중교통 시설 등을 설치하는 도로 다이어트 사업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속 자연숲과 문화공간을 동시에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점점 쇠퇴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과 제주형 그린 뉴딜사업에 접목, 앞으로 국비와 지방비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광역지자체 첫 전담 수어통역사 채용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 제주도가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담 수어통역사를 채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임기제 공무원(수어통역)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채용된 수어통역사는 앞으로 도정 주요 브리핑 때 동시 수어 통역, 제주도 SNS와 방송용 수어 통역 영상 지원, 각종 행사의 현장 통역 지원 등을 한다. 전 부서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

원(다급, 주 35시간)으로 배치된다. 응시 희망자는 제주도 제1청사 1층 총무과 인재채용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오는 23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데 이어 3월4일 면접을 거쳐 그달 5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전담 수어 통역사 채용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

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청각장애인들에게 손짓과 표정으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알려 의사소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진행됐다. 고경호 제주도 공보관은 "현재 제주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은 6230여명"이라며 "의사소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서귀포시, 올 예산 3803억 상반기 조기집행

3월 이전에 64% 집중 침체 경제 회복 주력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 예산의 64%가량을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예산 5942억원 가운데 3803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특히 오는 3월 이전인 1분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세수 확보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비교적 행정절

차가 간단한 예산부터 집행을 실시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또한 소비와 투자분야 예산 역시 상반기 중 제주도 목표율인 18.3%를 상회하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업 시장은 "얼어붙은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시, 32만6000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제주시는 토지특성조사를 끝내고 지난 1일부터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2021년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일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지가산정을 지난 1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한달여간 추진한다. 산정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51만 5794필지 중 32만6000여 필지로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는 제외된다. 산정된 지가는 4월 5일~26일까지 약 3주간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제주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방수
벽화(건물, 담장) / 인테리어 벽화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누출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 옥 종 010-5015-1951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탱자요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요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납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탱자대목) 2022년 3월 납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고 고품질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춘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론,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야마모, 미나몬
국내산 탱자대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선진 농업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